찜질하고 당구치고 10일 개원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찾은 노인들이 물리치료실에 마련된 복합찜질기를 체험하고 있다 〈왼쪽〉. 당구장에서 주먹을 불끈 쥔채 환호성을 지르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활력이 느껴진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여가·문화·건강을 한 곳에서…"

■ '국내 최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개원

노인 5천여명 방문 큰 관심

광주시 남구 노대동에 10일 문을 연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개원 첫날인데도 5천여명의 노인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체육관과 복지관, 문화관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춘데다 수영장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국내 최대 규모'라는 명성까지 뒤따라 수많은 이용객과 관람객이 건강타운을 찾았다.

체육관 2층에 마련된 헬스장에는 러닝머신 10여 대에는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잡은 노인들이 땀을 흘렸고, 하체 등을 단련시켜주는 자전거 운동기구는 할머니들의 인기를 차지했다. 일부 이용객은 탈의실과 샤워시설이 마련된 사실을 미리 알고, 운동복까지 준비해오기도 했다.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던 곽근국(70·광주시 서구 쌍촌동)씨는 "수영과 당구를 꾸준히 해 왔는데, 이곳에서 전문 트레이너에게 헬스를 한 번 배워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평소 운동을 해오지 않던 노인들은 헬스장과 탁구장에서 운동을 하기에 앞서 체육관 2층 입구에 마련된 운동측정실에서 혈압과, 체지방 등을 점검했다.

운동측정실 운영을 맡은 간호사 서수란 씨는 "혈압이나 체중, 체지방 등 측정 결과는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넘겨진다"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원 첫날인데도 물리치료실과 요가 교실에는 수백 명의 노인들이 붐볐다. 발 마사지와 복합찜질기, 수압마사지기 등이 갖춰진 물리치료실은 특히 노인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노래방 시설이 갖춰진 음악실에서는 나이 지긋한 '노신사' 들이 마이크를 통해 생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으며, 당구장에서도 진지한 표정의 '노신사'들이 게임을 즐겼다.

노인건강타운을 찾은 외국인 전문가들도 시설과 이용객 수를 보고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스웨덴 최대 노인복지시설인 미카사의 대표 앤더스 노르스트란드 씨는 "스웨덴에도 이러한 대규모 노인복지시설은 없다"며 "수영과 목욕, 이·미용, 식사를 제외하고 노인이 등록비 5천원만 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센다이시 노인복지시설의 총무과장 사이토 요시미 씨는"60세 이상에게 만 이용 기회를 줄 것이 아니라 50세 이상의 주민에게도 60세 이상보다 많은 이용료를 받고 이용기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점심·목욕탕 등 각 1천원에 'OK'

■ 주요 시설과 서비스·교통편

60세 이상 이용…회원 가입해야

국내 최대 규모이자 사실상 유일한 노인특화공간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노인들이 여가와 문화, 건강을 한 곳에서 챙길 수 있는 종합 여가문화복지시설이다.

광주시와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은 이를 '대한민국 노인복지 1번지'로 가꿔 노풍(老風)당당한 신노년문화를 선도하겠다는 각오다.

10일 이 곳을 찾은 스웨덴과 일본 사회복지시설 관련 전문가들도 "선진국 노인복지시설 못지않은 최고의 시설"이라고 평가하며 운동과 오락, 교양 등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높은 점수를 줬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주요 시설과 서비스 이용료, 교통편 등을 살펴본다.

◇**주요 시설**=광주시 남구 노대동 부지 10만1천67㎡에 연건평 2만266㎡규모로 들어선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는 식당과 목욕탕, 이·미용실은 물론 탁구와 당구, 게이트볼, 수영장, 골프연습장(오는 19일 개장) 등 운동시설과 노래방, 댄스교실이 운영된다.

또 컴퓨터와 외국어 강좌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과 물리치료실도 운영된다. 복지회관에는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프로그램실(요가, 체조, 단학, 기공 등), 관절염이나 요통 등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위한 물리치료실이 있다. 문화센터에는 영화감상실과 노래방, 컴퓨터실은 물론 도서·자료실, 카페, 전시실 등이 조성돼 있다.

◇**서비스 이용료**=점심식사가 제공되는 식당의 경우 65세 이상은 1천 원,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천 원(동반자도 동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목욕탕은 60세 이상 노인에게 1천 원을 받는다. 두 시설 모두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무료다.

물리치료실과 이용실은 연령에 관계없이 1천 원, 미용실은 2천 원이며, 컴퓨터는 3개월에 1만 원을 내면 배울 수 있고, 수영장은 65세 이상이면 2천 원(월 3만 원), 65세 미만인 경우 3천 원(월 5만 원)이면 이용할 수 있다.

문화센터 내 전시실(하루), 공연장(2시간), 대강당(2시간)은 5만 원에, 체육관은 하루 5만~20만 원이면 대여가 가능하다.

노인건강타운 이용 대상은 60세 이상으로, 6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은 5천원을 주고 회원에 가입해야 하며, 70세 이상과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무료로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교통편**=시내버스와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시내버스 노선은 기존 첨단95번과 진월77번, 진월177번 등 3개 노선에 송암47번, 금남55번, 봉선75번이 추가됐으며, 셔틀버스 4대가 5개 노선〈표 참조〉으로 나눠 매일 왕복운행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무료 셔틀버스 노선 및 시간표

<노선 1> 봉선동, 광주공원방향 (왕복 80분 19㎞)	
1회	문화전당(종각)(08:54)→금남로 4가역(08:57)→광주공원(09:07)→학림교(09:12)→남구 문화예술회관(09:18)→남구청(09:21)→진월저수지(동)(09:24)→타운(09:30)
2회	타운(10:00)→진월저수지(동)(10:06)→남구청(10:09)→남구문화예술회관(10:12)→남광주역(문화센타앞)(10:18)→전남대병원오거리(남)(10:23)→문화전당(종각)(10:27)→금남로 4가역(10:30)→광주공원(10:40)→남광주역(10:45)→남구문화예술회관(10:51)→남구청(10:54)→진월저수지 (동)(10:57)→타운(11:03)
3회	타운(13:00)→진월저수지(동)(13:06)→남구청(13:09)→남구문화예술회관(13:12)→남광주역(13:18)→전남대병원오거리(남)(13:23)→문화전당(종각)(13:27)→금남로4가역(13:30)→광주공원(13:40)→남광주역(13:45)→남구문화예술회관(13:51)→남구청(13:54)→진월저수지(동)(13:57)→타운(14:03)
4회	타운(17:10)→진월저수지(동)(17:16)→남구청(17:19)→남구문화예술회관(17:22)→남광주역(17:28)→전남대병원오거리(남)(17:33)→문화전당(종각)(17:37)→금남로4가역(17:40)→광주공원(17:50)→타운
<노선 2> 풍암, 금호지구 방면 (왕복 120분 12㎞)	
1회	상무역(08:30)→시청(08:36)→상무중(08:42)→금호시영(08:50)→서구문화센터(08:59)→마재우체국(09:02)→풍암저수지(09:06)→원광대한방병원(09:14)→호남삼육고(09:21)→진월대주A(09:25)→광주대(09:30)→타운(09:40)
2회	타운(10:00)→상무역(10:30)→시청(10:36)→상무중(10:42)→금호시영(10:50)→서구문화센터(10:59)→마재우체국(11:02)→풍암저수지(11:06)→원광대한방병원(11:14)→호남삼육고(11:21)→진월대주A(11:25)→광주대(11:30)→타 운(11:40)
3회	타운(13:00)→진월대주A(13:09)→장산초교(13:14)→원광대한방병원(13:22)→풍암 저수지(13:26)→마재우체국(13:29)→마재부영(13:31)→서구문화센타(13:36)→금호시영(13:45)→상무중(13:48)→시청(13:54)→상무역(14:00)
	상무역(14:05)→시청(14:11)→금호시영(14:20)→서구문화센터(14:29)→마재우체국(14:32)→풍암저수지(14:36)→원광대한방병원(14:44)→호남삼육고(14:51)→진월대주A(14:55)→광주대(15:00)→타운(15:04)
4회	타운(17:40)→진월대주A(17:49)→장산초교(17:54)→원광대한방병원(18:02)→풍암 저수지(18:06)→마재우체국(18:09)→마재부영(18:11)→서구문화센타(18:16)→금호시영(18:25)→상무중(18:28)→상무역(18:30)→타운
<노선 3> 두암지구, 북구청 방면 (왕복 110분 24㎞)	
1회	북구청(08:35)→우산1파출소(08:42)→서방시장(남)(08:46)→교육대(08:50)→산수오거리(08:57)→조선대(09:06)→봉선중입구(09:10)→백운광장(09:14)→진월대주A→광주대→타운(09:30)
2회	타운(10:00)→백운광장(10:16)→봉선중입구(10:20)→조선대(10:24)→산수오거리(10:31)→교육대(10:38)→서방시장(남)(10:42)→말바우시장(서)(10:46)→북구청(10:52)→우산파출소(11:03)→서방시장(남)(11:07)→교육대(11:11)→산수오거리(11:18)→조선대(11:27)→봉선중입구(11:31)→백운광장(11:35)→진월대주A→광주대→타운(11:51)
3회	타운(13:00)→백운광장(13:16)→봉선중입구(13:20)→조선대(13:24)→산수오거리(13:31)→교육대(13:38)→서방시장(남)(13:42)→말바우시장(서)(13:46)→북구청(13:52)→우산파출소(14:03)→서방시장(남)(14:07)→교육대(14:11)→산수오거리 (남)(14:18)→조선대(14:27)→봉선중입구(14:31)→백운광장(14:35)→진월대주A→광주대→타운(14:51)
4회	타운(17:10)→백운광장(17:26)→봉선중입구(17:30)→조선대(17:34)→산수오거리(17:41)→교육대(17:48)→서방시장(남)(17:52)→말바우시장(서)(17:56)→북구청(18:03)→타운
<노선 4> 문화예술회관 방향 (왕복 110분 22㎞)	
1회	운암시장(10:30)→운암3단지(10:34)→서강정보대(10:41)→광암교(10:55)→신세계백화점(북)(11:01)→화정중흥파크(11:06)→건강관리협회(북)(11:12)→월산5동(11:16)→신우아파트(11:18)→백운광장(11:19)→진월대주A(11:24)→광주대(11:30)→타운(11:35)
2회	타운(13:00)→진월대주A(13:07)→백운광장(13:14)→신우아파트(13:17)→월산5동(13:19)→건강관리협회(북)(13:23)→화정중흥파크(13:29)→신세계백화점(13:32)→운암시장(13:39)→운암3단지(13:43)→서강정보대(13:50)→광암교(13:54)→신세계사거리(14:00)→화정중흥파크(14:03)→건강관리협회(14:09)→월산5동(14:13)→신우아파트(14:15)→백운광장(14:19)→진월대주A(14:24)→광주대(14:29)→타운(14:35)
3회	타운(15:20)→진월대주A(15:27)→백운광장(15:34)→신우아파트(15:37)→월산5동(15:39)→건강관리협회(15:43)→화정중흥파크(15:49)→신세계사거리(15:52)→운암시장(16:00)→타운
<노선 5> 첨단 수완, 월곡동 방향(왕복 120분 50㎞)	
1회	첨단남부대학교(08:30)→첨단사거리(기산A)(08:37)→수완모아엘가(롯데마트)(08:46)→목련마을6단지(08:51)→광산구노인복지회관(08:53)→월곡시장(08:57)→어등초교(09:03)→공항입구(09:10)→타운(09:30)
2회	타운(17:10)→공항입구(17:30)→어등초교(하남지하차도)(17:37)→월곡시장(17:42)→광산구노인복지회관(17:46)→목련마을6단지(17:48)→수완모아엘가(롯데마트)(17:54)→첨단사거리(기산A)(18:06)→첨단남부대학교(18:14)

560석 식당에 3천명 몰려 '소동'

■ 개원 첫날 운영 미숙 곳곳 실랑이

10일 문을 연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는 5천여 명 이상의 노인들이 찾았다. 당초 예상을 넘어선 수준인데다, 이들이 일시에 식당이나 운동시설로 몰려들면서 곳곳에서 직원과 노인들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운영 미숙도 한 몫했다.

특히 노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회원이 2만명이 넘어선 만큼 일시에 노인들이 몰리는 상황을 염두에 둔 탄력적 운영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60여 석이 마련된 후생관 1층 식당은 배식 1시간 전인 오전 10시30분께부터 늘어선 줄이 오후 1시까지 계속됐으며, 노인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선 최소 1시간 이상 기다려야했다. 대기자들이 500m 가까이 늘어선데다 기운이 약한 노인 일부는 바닥에 앉거나 아예 발길을 돌리는 노인도 눈에 띠었다.

3천여 명이 가까운 인파가 식당으로 몰리자 직원들이 안전을 위해 출입문을 일시 통제했다가 다시 여는 과정에서 일부는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다. 이이심(여·67·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는 "뙤약볕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린 뒤에야 겨우 밥을 먹었다"고 말했다.

탁구장과 운동측정실, 수영장 등이 들어선 체육관에서도 '북새통'은 이어졌다. 체육관 2층에 26.4㎡(8평)규모로 마련된 운동측정실에도 사람이 일시에 몰렸으나 비좁은데다 단 1명의 직원밖에 없어 진행이 순조롭지 못했다. 5~10분이 걸리는 운동측정은 11시께 40여 명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코트가 4개인 탁구장도 밀려드는 이용객을 감당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평소에는 1천500명에서 2천 명 정도가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설 내 100명의 자원봉사자나 근무인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나 이날은 두 배 이상의 노인들이 찾았다"며 "식당이나 운동시설은 노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이용인원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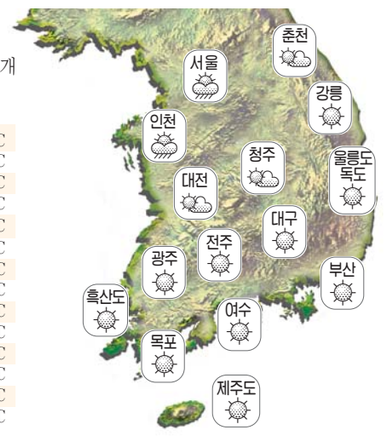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17분 해짐 19시 47분 달뜸 22시 29분 달짐 07시 58분

출근길 안개조심

대체로 맑겠으며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지역도 있겠다.

광 주	구름 조금	17/28℃
목 포	구름 조금	16/24℃
여 수	구름 조금	17/24℃
완 도	구름 조금	16/25℃
구 례	구름 조금	16/29℃
해 남	구름 조금	17/27℃
장 흥	구름 조금	17/27℃
고 흥	구름 조금	15/27℃
순 천	구름 조금	17/28℃
영 광	구름 조금	16/26℃
진 도	구름 조금	16/27℃
전 주	구름 조금	16/28℃
남 원	구름 조금	15/28℃
흑산도	구름 조금	16/21℃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서	0.5~1.5m	목포	04:21	09:38
먼바다	서~서	1.0~2.0m		16:02	21:24
남해 서부 앞바다	서~서	1.0~1.5m	여수	10:46	05:02
먼바다	서~서	1.0~2.0m		23:28	16:4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날 씨						
최저/최고	18/27	17/28	17/28	17/29	17/30	17/29

증심사 자연환경복원 차질

원주민들과 법적 분쟁 … 강제 이주 '제동'

탐방로 개방도 연기

광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무등산 증심사 자연환경복원이 일부 원주민들과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당초 완공일이 늦춰지는 등 차질을 빚게 됐다.

10일 시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증심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16명이 시의 '행정대집행계고'와 관련해 최근 광주지법 행정부에 행정대집행계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이 지난달 중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현재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13가구를 오는 8월말까지 이주시켜 이들이 거주하는 곳에 나무를 심는 등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광주시는 또 이들의 이주를 전제로 지난달 30일까지만 폐쇄할 계획이었던 증심교~바람재~토끼등~중머릿재~새인봉삼거리, 증심사~봉황대~천재단삼거리 등 탐방로 6개 노선의 개방을 지장물 철거 완료 때까지로 연기했다.

시 도시공사 관계자는 "증심사 원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해 행정대집행계고장을 보냈는데 법원에서 원주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며 "기일을 최대한 앞당겨 빠른 결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이주를 완료해 증심사 복원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환경복원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8년간 시가 742억원을 들여 무등산 자연공원 내 노후불량 시설물을 철거하고 훼손된 생태를 자연수림대 군락지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3단계인 상가 및 가옥 철거 뒤 자연환경복원 공사는 오는 8월말 준공될 예정이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대 교직원 67% "총장 후보 개방"

교수협 682명 설문조사

전남대 교직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총장 후보 외부 개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장 후보 개방에 찬성하는 이들은 총장이 교수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는 교직원들이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총장 선출 직선제로 인해 선거 후 내부 분열 및 반목 등 후유증을 불러 대학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전남대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총장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최근 전임강사 이상 교수(337명)와 직원(345명) 등 6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가 후보 자격을 교내외에 개방하자고 답했다.

또한 총장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묻는 질문에는 '행정과 관리능력'→'재정확보 능력'→'사회적 리더십'→'학식과 연구능력' 등의 순으로 응답, 교직원들이 학자형보다 CEO형 총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장 선출 방식 선호도는 총장 초빙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한 직선 방식이 66%로 가장 많았다.

전남대는 지난 1988년부터 총장 직선제를 유지해오다가 선거과열에 따른 후유증이 지적되자 지난해 무작위로 뽑은 간접선거단(132명)이 등록후보 8명 중 4명을 선출(간접선거)하고, 이후 4명을 대상으로 모든 교직원이 직접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 후유증이 커 교수평의회 주도로 총장선거제도개선특위를 구성,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북구 '365 오피니언 그룹'

온라인 회의 활성화

광주시 북구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해온 '365 오피니언 그룹'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전국 최초로 '온라인 회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단체와 전문가, 주민 등 276명으로 구성된 '365 오피니언 그룹'은 결속력을 강화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회의 문화를 강화키로 했다. 17일까지 분과별 토론회를 갖고 온라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뒤 토론 주제를 정할 방침이다. 토론과 회의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이뤄진다. /이종행 기자 golee@